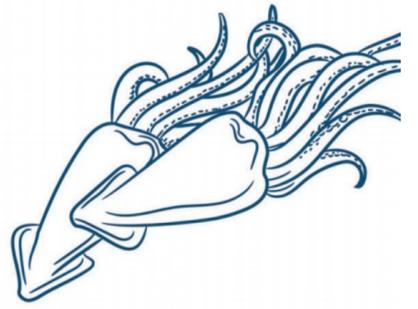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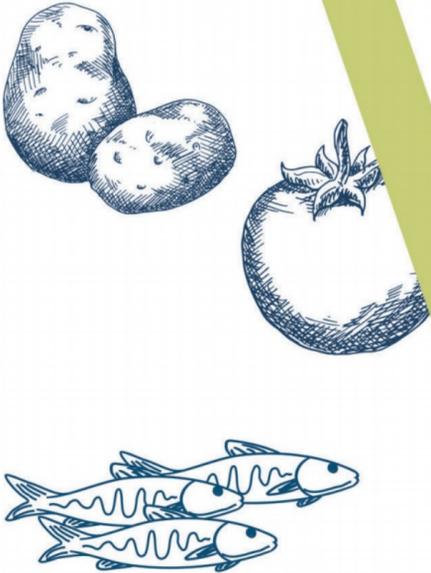


확자지꼴 화합의 장터 영호남 농어민 모처럼 웃었다



광주일보-매일신문 주최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에서 '상생장터'
호남 23곳·영남 29곳 직거래 부스 마련
영광 굴비·울릉도 오징어 등 특산물 가득
경매쇼·예술인 무대 등 다채롭게 펼쳐져



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에서 화개장터를 방불케 하는 '상생장터'가 펼쳐졌다.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 주최하고 있는 '2021 영호남 문화대축전'이다. 대구와 광주에서 번갈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7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

행사장에선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쯤 시작된 개막식을 대형 스크린으로 소개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축사와 상생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했다.

내빈들은 "이번 행사가 영·호남 상생, 화합의 장에서 더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빛을 받았던 형제애를 유지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동서 광역경제권을

을 구축하자"고 입을 모았다.

행사의 꽃인 상생장터엔 오전 10시 이전부터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호남에서 23곳, 영남에서 29곳의 직거래 장터 부스가 마련됐다. 오후 2시에는 각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깜짝 경매쇼'도 진행됐다.

영광군 부스에서 굴비를 판매한 김영선(67)씨는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와중에 이런 행사를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영광 굴비를 비롯해 대구 시민들에게 선보일 좋은 상품들을 많이 가져왔으니 행사 동안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 부스에서 갓 잡아온 배오징어를 선보인 김연만(51)씨는 "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건조시켰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다. 몸통을 보면 결이 선명하게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쫄깃한 시식용 오징어 다리를 씹던 사람들은 이내 지갑을 열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던 특산물이 한곳에 모이자 장터를 찾은 시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각자 손에 든 장바구니와 접이식 짐 카트는 영호남 각지에서 온 특산물로 가득 찼다. 친구 2명과 함께 장터를 찾은 이영욱(61)씨는 "곧 김장철이라 김장 재료를 싸게 사려고 오늘 행사를 기대했다"며 "완도군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 보리새우 등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이번 행사장에는 상생장터, 경매쇼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무대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매일신문=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영남

호남



온라인 개막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온라인 개막식에서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5일 대구시 달서구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화개장터를 방불케 하는 '상생장터'가 펼쳐졌다. 영·호남 시도민들은 대구의 새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 예정지에서 서로 가져온 특산물을 맛보며 정을 나눴다. <매일신문 제공>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